



아틀리에

손끝으로 빛은 단정한 일상

시간이 흐를수록 멋이 깊어지는 수제 가죽
카드지갑 컬렉션을 소개합니다.



탄 브라운

따스한 온기를 품은 클래식

가죽 본연의 결을 살려 쓸수록 은은한 윤택이 깊어집니다.

- 자연스러운 광택
- 부드러운 감촉
- 견고한 손바느질



클래식 블랙

단정하고 묵직한 존재감

어떤 차림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가장 깔끔한 기본 색상입니다.

- 차분한 색감
- 정갈한 윤곽선
- 단단한 모서리



올리브 그린

숲을 닮은 차분한 감각

자연의 편안한 정서를 담아 일상에 조용한 생기를 더합니다.

- 은은한 흙빛
- 편안한 손맛
- 정밀한 마감선



딥 네이비

밤바다처럼 깊은 색채

빛에 따라 오묘하게 감도는 짙은 푸른빛이 세련된 멋을 드러냅니다.

- 선명한 푸른빛
- 우아한 곡선
- 촉촉한 바늘땀



깊은 여운을 남기는 와인빛

오랜 정성을 들여 한 땀씩 완성한 지갑으로 소중한 일상을 채워보세요.